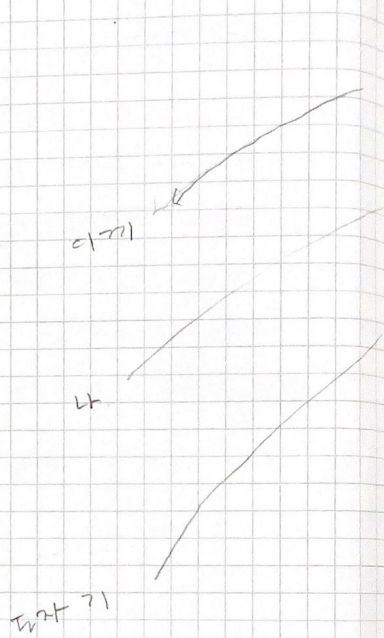


나의 작업은 나의 관심의 변화를 대변한다.
나의 관심의 대상을 변경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과 성향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주요성 본연과 다양한 수용을 시도한다.
그래서 작업은 자주 변화하는 듯 보이지만
등여다보면 그 의도와 표정하곤 하는
방향은 머뭇거리 있는 듯하다.

지금 나의 관심은 공중이다.



내가 작업을 통해 표현하고 싶은 공작은
 지구
 인간
 인공지능인 것
 (너무 이성적이지 않게 할기할 수 있는 것)
 의 공작이다.

지구에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넘쳐나야 하는데
 어드레 그 균형이 깨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점점하고
 이제 그것들이 인간에게도 위협이 되는
 걱정하지만 그것들을 포기할 수 없는
 전 인류의 고민에서 나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역마전 작곡 도에게제정시간에

진금 통역만 기원하길 바란다.

- 평생대 시간 여행이라든 보정증

평생대의 동, 식물이 래래 자꾸만

빈곤 평생대에 공룡뿐 아니라

꽃과 개미등 다양한 동식물의

취향과 공룡의 멸종에 대해

알아보고 정원을 표현하는 시간이라고.

점토인색과 점토인색의 동양 인화 공룡의 멸종으로

평생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제법이 있는데

동양적인 반응과 너무나 동양화 자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자꾸만 준비하면서

표정에서부터 인류 멸망의 가능성에 대해

이미 느낌이 들고 알고 있었지만

그날 아이들의 열정적 공룡의 멸종과 평생대의

마지막을 준비는 안에서 갑자기 경탄이 났다.

이 아이들의 미래에는 어떻게 지구에

공포하곤 있을까?

나의 작업 재료는 지구의 여러 단층과정으로
생성된 정토이다.

나의 작업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자연문물 높은 영을 가해 목성을 바꾸고

취향에 순응하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와

나의 작업과

지구의

공룡에 대해 작업해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많아졌는데

아이와 함께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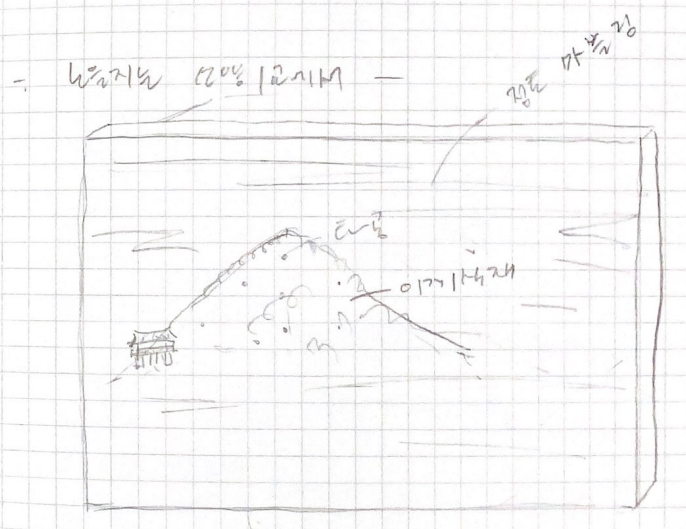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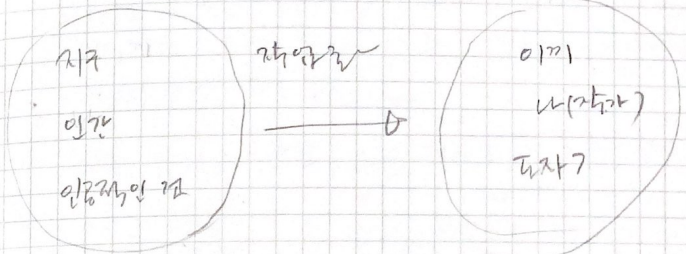
(이끼) - 지구 전체의 유기생물 (약 5억 ~ 4억 5천만 년 전)
 모든 생태계의 기본 (작은 곤충들의 범람지)
 숲의 수광물질
 이끼를 이룩시킨 물 → 탄닌산
 미세먼저 광합성이 뒤따라
 우주공간에서 볼 생명 광합성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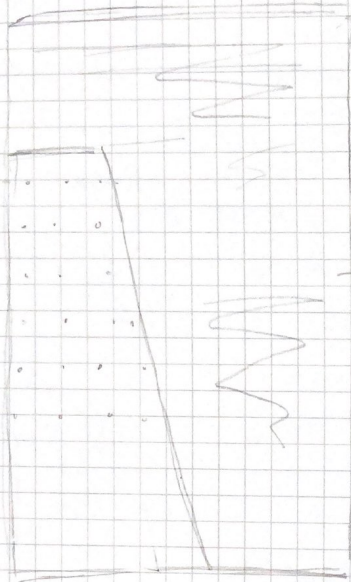
문이끼
 이끼
 산성기
 이끼
 산성기

우리와 문이끼
 산성기
 산성기

토성 등 이끼 → 사람들이 생활 공간에서의 이끼
 토성 등 이끼 →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한 생태계 (작은 곤충의 범람지)

결론





정원
가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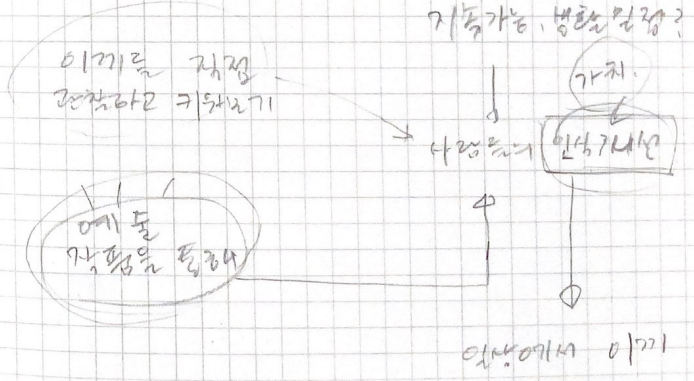
정원
유지

포기할 것이지 아깝!

지동력 수분 공급이 부족한 곳인.

포기할 것이지 아깝!
2014년 독일 대안당 Green City Solutions
가 만든 City Tree - 50m 이하의 대기정화
자율인테리어 기구 정화 2

나무 향과목의 변형 City Tree - 2.55고유의
대기정화능력
유럽으로 유통되어
이제까지 성공. ————— 2거리이만 성공률



정확히 관리하면
가정가능, 병행할 것?

가치

인생가치

예를 들어
가정정화

이제부터 아깝

지동침인 문 문집이 아닌 수문문집에
대관 기명!

고자작품을 위한 이기가 아닌
이끼어 공집하는 두 있는 고자 작품.



심정 기명.



심정 기명! texture 등 등래 강자작

* 이끼 페인트

→ 많은 작재품이 벽걸이를 작음

→ 벽의 환경이 이끼 생물의 가응환지가

문 있음

→ 화성의 광택한 벽, 공간 거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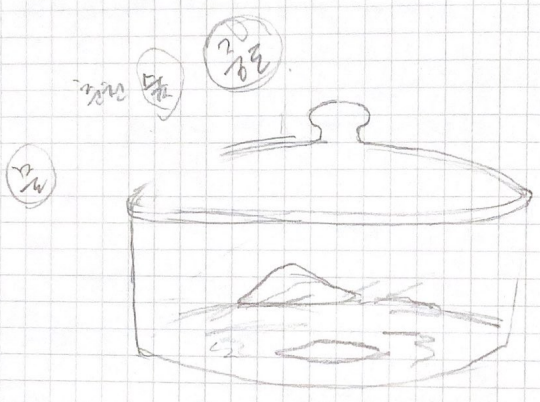
* 이끼 페인트를 위한 전자기 캔버스

전자기 캔버스 제작 (수용공급을 위한

표지감만 판공제트)

↓

관찰 작가들과 작업



100개 유닛

성지	1차성유동	2차성유동
- 들쭉	- 50인 판위	2차성
- 동영토	:	
- 영토 1차점	- 1000 인 이하	
- 영토 (1차점)	:	3차성
:	:	

시멘트유동

이주변의 이끼.

마기름 평근증종이끼

Plagiochloa acutum (Lindb.) T. J. Kop

- 산지의 습한 바위 위 또는 땅 위이끼 생육한다.

다시 습한 바위에서 자라기도 한다.





토심에서 발육 않는 이끼

담배타락, 팟툼 반포뿔럭 사이

- 은이끼, 담배알 이끼,

아파른 관란

- 라기름수룡이끼, 등둥이끼류 (정룡이끼)

이끼사이의 새싹

- 쓰리이끼 (정육)

시공에 ^{가장} ~~가장~~ ^{적당} 이끼 - ~~가장~~ ^{가장} 적당이끼 (정육), 가늌전깃이끼

간접가능한

쓰리이끼

나뭇이끼, 깃털이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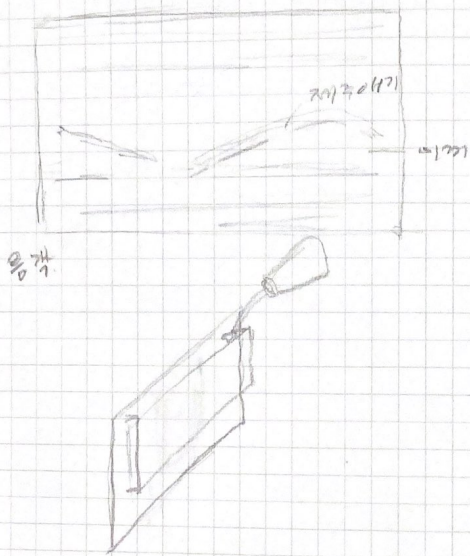
이끼피어인트에 ^{가장} ~~가장~~ ^{적당} 가능한 이끼?

- 은이끼, 쓰리이끼, 등뿔럭 이끼, 깃털이끼

작형이 ^{가장} ~~가장~~ ^{적당} 이끼 - ~~가장~~ ^{가장} 적당이끼 (비란이끼), 깃털이끼

나뭇이끼류 (피어인트)

하늘 등등 풍경.



이제 그림!

하늘 표현 및 명암면 - 선, 점, 면, HA.
안중 시선 처리.

- 이제 그림! - 명암면, 점, 하늘, 명암면 표현.
- 하늘, 선, 점, 면 - 선, 점, 면.
- 안중 시선 처리.

내가 작품과 이끼의 공존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지구의 생명체 중 아무리 작고 사람들의
기준에 반값 건 없어보여도 나름의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 가치의 기준이 그저 우리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이 이 지구에 대해 갖고 있는 전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인데 인간은
점점 만만하고 무분별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나 스스로 되고 사는 일에 지쳐사는 생계형
작가를 작리 작은 이끼를 보며 나의 비대한
생명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 또한
얼마나 만만한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다.

생명이 지어 간간히 작품을 하는 작가이지만
수년 전 지기를 두근듯 다시 살아나는 이끼처럼
작업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좀더 막힘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듯 작업하고자 한다